

이것이 문제다.

노 94.14

가족까지 조합활동에 접맥시켜야

기를 듣는다. 또 조합일을 말으면 '이혼하고 나서 하라'는 말도 듣게 된다.

그 이유는 조합일을 한다고 매일 늦는 것은 예사고 거기다 술까지 먹고 새벽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이 연속되니 집에서는 '대화'는 커녕 잠만 자게 된다. 그리고 겨우 하는 말은 '피곤하다'는 말뿐이다.

게다가 '사람 만나는 사업'이라 술자리도 많다보니 술값 지출도 무시못한다. '차라리 월급장이 부인은 해도 노조간부, 특히 노조 위원장의 부인은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게 된다. 0000노조 간부의 경우는 간부직을 그만두고 나서 몇 백만원의 술값 빚을 졌다고 한다.

그러나 0000노조 김

00위원장의 경우는 남다르다. 휴일에는 하나뿐인 딸과 놀아주는 등 집에서도 잘 하기 이해 노력한다. 또 부인에게 조합에서 생긴 일을 '자상하게' 설명을 해준다. 노조에 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깨우치게 되어 적극 지지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노조일은 노조원으로 국

한되지 않는다. 가족까지 조합활동에 적극 동참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로 늦을 땐 '무슨무슨 일로 늦게 된다'고 설명하고,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에게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 안심시키는 일에도 신경을 써준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늦지 않도록 한다. 늦는 것이 일상화돼 일찍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다는 조합간부들도 많다. 조합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노보도 집에 가져가 같이 보면서 노조의 활동을 설명해주어 '든든한' 지원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자리잡히면 노조간부가 신랑감 후보 1위가 되지 않겠는가.

조합일을 하다보면 흔히 부인이 '보파리를 몇번씩 싹다'거나 '이혼하자'는 애